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활용한 레드카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정기성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통하여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서 한국적 이미지의 글로벌화를 모색할 수 있는 미적 특성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1990년대 이후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패션쇼를 진행했던 진태욱, 이영희, 설윤형과 이상봉의 작품사례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복식의 미적 특성을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으로는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 융합성이 도출되었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성은 평면적 구성이나 풍성한 볼륨감과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 불규칙한 곡선의 흐름이나 경계의 해체와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징성은 모란, 격자문 등의 전통문양과 천연염색이나 자수 등의 기법, 오방색의 활용을 통해 나타났다. 셋째, 연속성은 주름이나 드레이프를 통한 선의 흐름과 실루엣의 관계, 비치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는 선과 색의 중첩, 컷 아웃을 통해 나타나는 몸과 복식 간의 공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융합성은 옷의 구성방식과 소재나 문양의 활용에서 동서양의 요소가 조화롭게 표현된 것과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의 다른 미적 특성들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레드카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이라는 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로서 덕혜옹주를 뮤즈로 삼았고, 작품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8점의 레드카펫 드레스 작품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 한국적 레드카펫 드레스 디자인,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 융합성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패션디자인이란 인간의 의생활 문화를 만들어 내는 조형 행위임과 동시에 나와 집단,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시공을 소통하는 매체로서 작가는 생활양식을 크게는 문화를 형성한다.¹⁾ 그러므로 글로벌 사회에서 패션은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여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개방이후 서양복식을 받아들인 이후로 우리의 전통복식은 사라져 갔다. 더욱이 글로벌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패션은 한국의 정서와 미적 특성을 담기보다는 서구의 트렌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패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적인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문화요소를 패션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는 있다. 전통문화요소를 디자인 개발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올림픽 등의 국가행사나 관공서, 학교 유니폼 등으로 개발영역과 파급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한국 조형예술의 미적 특수성과 글로벌 감각의 보편성 접목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디자인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টে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학술적 측면에서도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고유한 가치를 패션 디자인의 독창적인 발상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금기숙(1999)²⁾은 한국 복식을 중심으로 전통미를, 최세완, 김민자(1993)³⁾, 김인경(2005)⁴⁾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를, 김현숙(2003)⁵⁾은 한국적 패션 조형성의 형성과정을, 김유경(2007)⁶⁾은 패션트렌드로서 한국적 디자인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류학 분

야에서 김인경(1995)⁷⁾, 양리나, 최나영(1997)⁸⁾, 최인려, 이선희(2007)⁹⁾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김새봄 외(2007)¹⁰⁾는 전통 복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였고 권순교, 박선경(2006)¹¹⁾은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미, 한국전통복식의 미, 현대에 표현된 전통복식미 등의 미적 개념들이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형적인 분석과 미적 특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변화되고 국제화된 시대적 트렌드가 지배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담은 전통미를 재조명하여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고유성과 독창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을 활용한 레드카펫 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과 가치를 담은 패션디자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으로 레드카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의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첫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서 한국적 이미지를 컬렉션의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진태욱, 이영희, 실윤형, 이상봉을 4명의 대표 디자이너로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컬렉션 참가는 1993년 진태욱, 이영희, 이신우의 파리 프레타포르테 참가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고려한 결과이다. 한국의 정서와 미적 특성을 담은 진태

옥의 의상은, 파리 컬렉션 참여를 통해 파리 비뜨와르(Buitoir), 뉴욕의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니만 마크스(Neiman Marcus) 등 유명 매장과 백화점에서 판매¹²⁾되기도 하였고 이영희 또한 94년 10월에 파리에 개인매장인 “이영희 부티크”를 열어 한복의 아름다움으로 현지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설윤형은 진태옥, 이신우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여성디자이너로 한국적인 주제를 모던한 감각으로 표현한 디자이너이며 90년대 후반 뉴욕컬렉션을 주 무대로 하여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상봉은 1985년 브랜드 런칭에서 ‘백의민족’을 주제로 삼았고 2003년 파리 컬렉션부터는 샤머니즘, 한글, 단청, 격자문 등 전통문화와 한국적 이미지를 지속적인 컬렉션의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파리, 뉴욕 등 패션의 중심도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패션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지만 한국적인 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배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패션전문정보사이트와 패션 컬렉션지에서 대표작품을 선정하여 사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의 범위와 자료가 방대한 반면 자료추적의 한계성과 작품제작을 목표로 하는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적 분석보다는 한국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작품을 선정하고 사진 분석을 바탕으로 형태, 색상, 재질 및 문양, 기법 등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8벌의 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II.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관한 고찰

1. 한국적 미의 개념

한국적(韓國的)이란 한국 고유의 특성이나 색채가 있는 것¹³⁾을 의미하고 미(美)란 아름다움, 혹은 철학에서 감성과 이성¹⁴⁾이 조화·통일에 의하여 순수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¹⁴⁾을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자(2009)¹⁵⁾는 한국적이라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성격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한국미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전통이 담긴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형예술로서 한국적 디자인에는 형식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한국적 이미지가 표출되어야 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 즉, 미의식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의 대상물 즉 미적 대상에 대해서 한국적 미를 논하는 것은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을 미적 대상을 관조할 때와 조형물(작품)을 미적 대상으로 취할 때 관찰자가 갖는 태도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품의 감상에는 대상에 나타난 작가의 인격성이 향수되지만 자연의 미적 대상을 관조에는 이러한 계기가 없다. 미적 관조에는 대상이 줄 수 있는 인상¹⁶⁾에의 전적인 감정적 귀속이 가능하지만 예술 활동은 미적 관조에 비해 감정체험의 순수한 형식적 표현이며 예술에서는 미적 가치 외에도 종교적·정치적·지적 가치 등에 대한 신념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예술에서는 창작의 바탕을 이루는 예술가의 창조적 인격의 개성, 혹은 이것을 배우에서 제약하거나 배양하는 모태로서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의 특성에 기초하여 양식 현상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이다.¹⁶⁾

현대 패션디자인이 진정으로 한국적 미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국미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단순히 형식

적 측면에서 전통적 요소를 재현·차용·재해석하여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용적 측면에서 역동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방향성 있는 인식과 함께 패션 트렌드를 한국적 미의식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개념

전통복식은 일반적으로 민족의 고유 정서와 생활양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독특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성과 독창성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연구된 한국 전통복식의 미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손경자(1968)¹⁷⁾는 전통 궁중복식의 연구를 통하여 고전미와 고유미를 강조하여 역사성 혹은 시간적 연속성을 부각시켰다. 금기숙(1990)¹⁸⁾은 한복의 복식미를 고찰하여 여유미, 부드러움, 비결정성의 가변성을 지닌 풍성한 실루엣의 자연미를 강조하여 공간적 포용과 변화에 대한 유연함의 유동미를 부각시켰고, 또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격미, 주술적인 벽사의 미, 관습적인 전통미를 강조하여 전통복식에 내포된 정신의 상징적 표현을 밝혔다. 최세완, 김민자(1993)¹⁹⁾는 자연주의 미의식의 자연미, 세속적인 염원을 담은 무속신앙과 음양오행설을 담은 상징미, 절제와 규범이 강조된 비애미를 규명하였는데 여기서 자연미란 한국 사람의 자연친화적 태도로 파악되며, 상징미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넘어 복식에 표현된 우주에 대한 신념으로서 한국인의 염원과 희구로 분석되는데 금기숙은 이를 벽사미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애미는 이념이나 도덕적 질서 등 가치의 궁극적인 선양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며 금기숙이 규정한 인격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권영숙,

도주연(2000)²⁰⁾은 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미, 장식과 형태의 절제미, 풍성하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형태미를 강조한 여유미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에 비해 조형적인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자연미는 선의 특성을 통해서, 비애미와 인격미는 절제된 장식과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여유미, 부드러움, 비결정적인 가변성은 풍성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진민, 김민자(2006)²¹⁾는 기의 순환을 위한 감춤의 미, 공과 허를 강조한 비움의 미, 절제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소박미, 음양오행과 복을 비는 상징의 미를 언급하였다. 심수현 외(2007)²²⁾는 한국 복식미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미의 특성을 자연의 미, 추상의 미, 해학의 미로 구분하였다. 이예영(2011)²³⁾은 초공간적 열린 미, 정적인 미와 동적인 미, 둥글의 미, 여백의 미, 상징미로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조형적 특성과 미적 특성을 통시적 관점에서 함께 연구하였다. 한국 전통복식의 미를 나타내는 어휘 중에서 고전미, 고유미, 전통미는 고전미로 자연미, 자연의 미, 둥글의 미는 자연미로 인격미, 비애미, 감춤의 미, 비움의 미, 소박의 미, 정적인 미, 여백의 미는 절제미로, 상징의 미, 추상미, 해학미는 상징미로 정리되었다.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은 통시적으로 추구되었던 본질로서 연속성을 내포하여 고전미와 자연미를 표현한다. 한편 조형적 특징으로는 유동성으로 여유미를 표현하고, 복식활동을 통해 추구되었던 신념으로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절제미는 조형적 특성으로는 감춤의 미, 비움의 미, 소박의 미, 정적인 미, 여백의 미를 포함하고 행동양식적 측면에서 절제와 규범을 강조하는 인격미, 비애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융합성으로 명명하였다.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으로 정리된 고전미, 자연미, 상징미, 절제미와 여유미로부터 도출

<표 1>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연구자(연구년도)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손경자(1968)	고전미, 고유미	⇒	고전미, 자연미, 상징미, 절제미, 여유미	⇒	연속성, 유동성, 상징성, 융합성
금기숙(1990)	자연미, 인격미, 벽사미, 전통미				
최세환·김민자(1993)	자연미, 상징미, 비애미				
권영숙·도주연(2000)	자연미, 절제미, 여유미				
이진민·김민자(2006)	감춤의 미, 비움의 미, 소박의 미, 상징의 미				
서봉하·김민자(2007)	비움의 미, 감춤의 미, 자연의 미				
심수현 외(2007)	자연미, 추상미, 해학미				
이예영(2011)	초공간적 열린미, 정적인 미, 동적인 미, 등급의 미, 여백의 미, 상징미				

된 연속성, 유동성, 상징성, 융합성의 미적 특성은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표 1>은 전통복식의 미를 표현하는 공통어휘의 추출과 이로부터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을 도출한 과정을 나타낸다.

III.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이 표현된 국내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분석

본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한국복식의 미적 특성이 현대 패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디자이너들이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컬렉션의 주된 모티브로 활용했던 진태욱, 이영희, 실윤행과 이상봉의 작품분석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가 표현되는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진태욱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진태욱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색상의 대비나 장식적인 모티브의 활용보다는 소재나 먹색, 소재의 비침과 중첩 등을 통해서 한국

적 정서를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림 1>에서 심플한 구조의 치마는 단에서 보이는 불규칙한 선의 흐름으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여 유동성을 표현한다. 또한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삼베와 부드러운 실크 오간자의 조합, 모델로서 흑인을 선택한 것과 붉은 색의 목장식은 동양과 서양, 정신성과 물질성을 조화롭게 연출하여 융합성을 표현한다. <그림 2>에서 백색의 상의는 앞뒤 길이의 차이와 좌우의 비대칭이 특징적이며 평면적 구성으로 몸에 대한 추상적 해석과 우주에 대한 신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절제된 장식과 형태로서 인격미를 길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동양복식의 특징인 평면적 구조의 상의에 서양의 소재인 레이스(lace)를 사용하였고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하는 금붕어 모양의 치마와 조합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한국복식의 전통과 서양복식의 특성을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는 열린 사고로 융합성을 보여준다. <그림 4>의 상의에서 오간자의 비침으로 노출과 은폐를 이중적으로 표현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치마에서는 유사한 색상에 재질감이 다른 두 소재를 혼합하였고 보는 각도에 따라 실루엣이 달라지는 비정형적인 형태감으로 유동성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태욱의 작품에서 형태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불규칙한 선의 흐름은



<그림 1>
진태욱, 2000 S/S
(출처: 『Fashion Art』, 2009, p.230.)



<그림 2>
진태욱, '02-03 F/W
(출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2009, p.193.)



<그림 3>
진태욱, 2005 S/S
(출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2009, p.194.)



<그림 4>
진태욱, 2013 F/W
(출처: <http://www.style.com>.)

유동성을 나타내고 색채의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색과 먹색은 매 시즌마다 변하는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시간의 변화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상징성과 연속성의 표현하며 소재와 기법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침과 중첩, 이질적 소재의 조합은 연속성과 융합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2. 이영희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이영희는 전통 한복의 미를 그대로 차용한 스타일로부터 동서양의 의복을 결합시킨 퓨전 스타일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저고리가 없는 한복 치마 형태의 드레스는 한국 복식의 전통성과 서양복식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전통적인 한복의 착장법을 벗어나 저고리는 착용하지 않았고, 치마의 폭을 좁게 변형시켰다. 가슴부위에서는 흰색의 바탕에 전통 문양을 자수로 표현하여 길상의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치마 부분의 검정색과 강한 대비와 어깨를 모두 드러내고 있지만 단아한 한복의 느낌을 간직하여 절제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 6>에서는 오픈과 이어 라인의 드레스에 소색에서 흙색에 이르는 삼베를 조각보 기법으로 연결하여 허리에서 다시 한번 돌렸는데 반복되는 직선의 사용으로 전체 실루

엣과 디테일에서 나타나는 선의 연속성을 통해 각진 형태로서 인간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저고리와 치마를 하나로 연결하고 소매를 제거하여 서양복식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여유로운 실루엣을 통해 한복의 이미지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림 7>에서는 허리가 노출된 것과 색의 중첩이 우선적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비대칭, 비정형의 치마는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감으로 유동성과 연속성 표현하고 있다. <그림 8>은 전형적인 서양 드레스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한국적이다. 가슴부위의 쪽색과 한국화가 그려진 치마 부분은 색채와 문양의 활용을 통해서 한국적 이미지를 직접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영희의 작품에서는 A라인 실루엣과 유기적인 선의 흐름이 유동성과 연속성이 나타나고 전통적인 한복의 소재와 문양,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이나 소재와 문양, 색채의 사용이 전통적인 착장법의 파괴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상징성과 융합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3. 설윤희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설윤희는 전통문양, 한복의 형태와 디테일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트렌드와의 접목을 추



<그림 5>
이영희, 1995 S/S
(출처: 「파리로 간 한복 쟁이」,
2008, p.196.)



<그림 6>
이영희, 1996 S/S
(출처: 「파리로 간 한복 쟁이」,
2008, p.298.)



<그림 7>
이영희, 2007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
이영희, 2011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설운형, 1991 S/S
(출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을 찾기」, 2009, p.197.)



<그림 10>
설운형, 1994 F/W (출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을
찾기」, 2009, p.202.)



<그림 11>
설운형, 1995 S/S
(출처: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을 찾기」, 2009, p.198.)



<그림 12>
설운형, 2000 S/S
(출처: 「gap press」, vol 25,
p.142.)

구했다. <그림 9>에서 블라우스 칼라, 유연한 곡선으로 처리된 베스트의 단과 목둘레선 그리고 스커트의 주름에 의한 드레이퍼리가 유기적인 통일성 속에서 곡선의미를 강조하여 연속성과 상징성을 나타낸다. <그림 10>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모란 문양의 자수 그리고 실크와 모피의 이질적인 소재의 조합이 특징적이며 상징성의 추구하고 융합적 사고가 나타났다. <그림 11>에서는 티셔츠에 한국적 문양을 스텐실 기법으로 프린트하였고 둥근 형태감의 짧은 치마를 매치시켜 활동성을 높임으로써 발달함이 돋보이며 문양과 형태에서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2>에서 상의의 튜브 탑과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는 모두 보라색으로 통일성을 가지는데 특히 오간자의 비침은 선의 반복과 색채의

중첩을 통해 탑과 바지를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며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설운형의 작품에서는 완만한 곡선이나 직사각형의 반복으로 전체 실루엣과 디테일 선의 사용에서 유기적인 연속성을 나타내고 모란 문양이 자수를 통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풍요를 기원했던 한국적 정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침은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몸과 복식 그리고 조형요소 간의 공간적 관계에 연속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3>
이상봉, 2003
(출처: 『이상봉의 패션 이즈 패션』, 2013, p. 236.)



<그림 14>
이상봉, 2006
(출처: 『이상봉의 패션 이즈 패션』, 2013, p. 489.)



<그림 15>
이상봉, 2011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6>
이상봉, 2012 S/S
(출처: <http://www.style.com>.)

4. 이상봉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이상봉은 샤머니즘, 수목화, 한글, 단청과 격자 문양 등 전통적인 주제와 모티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뉴욕이나 파리 등 서양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림 13>는 샤머니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목판의 구조선이 노리개 형식의 프린지로 연결되면서 연속성과 유동성이 표현되었다. 또한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의 색상은 오방색을 표현한 것으로 상징성과 함께 전통과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그림 14>은 수목화와 한글을 잘 조화시켰고 평면적인 상의의 구성과 문양의 배치에서 여백의 미로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전통과 트렌드가 조화롭게 접목된 융합적 사고가 돋보인다. <그림 15>에서는 한국의 지형을 유기적인 선의 반복으로 표현한 것이 부각되며 투명감이 없는 소재이지만 색의 점층적 사용을 통해 중첩된 공간의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그림 16>에서는 단청문양을 입체적으로 재단하여 가슴에 완벽하게 밀착시켰다. 치마 부분에서는 문양을 중첩시켰고 단부분에서는 일부를 컷 아웃(cut-out)시켜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했다. 또한 치마 아래의 레깅스에 문양을 프린트하여 전체적으로 공간의 연속성과 전

통과 현대의 융합성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봉의 작품에서는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의 조합을 통해서 융합성이 나타나고 오방색과 색의 중첩과 그라데이션의 사용에서는 상징성과 연속성이 나타나며 한국적 문양과 색채의 표현이 비치는 소재의 특성이나 컷 아웃 등의 기법이 서구적이며 트렌드한 감각과 조화되어 융합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무대에서 패션 쇼를 진행해 온 진태욱, 이영희, 설윤형과 이상봉을 대표 디자이너로 선정하고 작품분석을 통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유동성은 평면적 구성이나 풍성한 볼륨감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이 변하는 것과 문양의 배치에 따른 여백의 미, 불규칙한 선의 흐름, 경계의 해체 등 주로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둘째, 상징성은 모란, 격자문 등의 전통 문양과 천연염색이나 자수 등의 기법과 오방색 등 소재의 활용, 색의 조합을 통해 주로 나타났다. 셋째, 연속성은 주름이나 드레이프의 반복을 통한 선의 흐름과 실루엣의 관계, 비치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는 선의 유기적 구성과 색의 중첩, 컷 아웃 기법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넷째, 융합성은 옷의 구성방식이나 소재의 활용에

서 동서양 복식의 특징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표현된 것과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 등의 다른 미적 특성들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선정된 작품을 통해 분석한 디자이너의 조형적 특징과 도출된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작품 제작

본 연구는 한국의 정서와 한국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담은 디자인은 세계화 속에서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데 착안하였고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디자이너의 감성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파급효과가 큰 아이템으로 레드카펫 드레스를 선정하고 앞서 도출한 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표 2> 디자이너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의 도출

디자이너	조형적 특징		미적 특성
진태욱	형태	비대칭/비정형/ 평면적 구성/ 불규칙한 선의 흐름	유동성
	색채	흰색/소색/먹색/검정	
	소재/ 문양기법	리넨/오간자울/ 비침/중침/ 이질적 소재의 조합	
이영희	형태	A라인실루엣/ 유기적인 선의 흐름/ 전통적 착장법의 파괴	상징성
	색채	흰색/검정/쪽색/흙색	
	소재/ 문양기법	실크세틴/오간자/ 천연염색/자수/조각보 모란/소나무/주름	
설윤형	형태	등근형/ 유기적인 선의 흐름/ 이질적 형태의 조합	연속성
	색채	흰색/빨강/파랑/보라/검정	
	소재/ 문양기법	세틴/메시/모피/ 모란/자수/스텐실/프린지/중침/이질적 소재의 결합	
이상봉	형태	유기적인 곡선/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의 조합	융합성
	색채	오방색/그라데이션	
	소재/ 문양기법	세틴/오간자울/ 한글/단청/적자문/프린지/ 깃 아랫/문양의 중첩	

기획하고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1. 디자인 콘셉트 설정

디자인 개발을 위한 콘셉트(concept)는 “덕혜옹주,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다.”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일합방이 되지 않았고 조선제국이 건재한 상황에서 덕혜옹주가 문화사절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고 참석기간 중 각종 행사에서 다양한 드레스를 통해 한국의 미(美)와 정신을 전하게 된다는 가상적 내용을 담고 있다. 덕혜옹주를 뮤즈로 선택한 이유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옹주라는 신분적 지위가 있으며 덕혜옹주의 삶이 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상실에 따르는 외압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드카펫 드레스의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뮤즈의 신체적 특성이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덕혜옹주의 이미지와 유품사진 등은 전시장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디자인 기획 및 작품제작 의도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으로 도출된 유

동성, 상징성, 연속성, 융합성을 형태, 색채, 소재의 디자인 요소로 분류하여 문양, 재질감, 디테일 등을 디자인을 구체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적용하였다. 형태는 레드카펫 드레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머메이드(mermaid) 실루엣과 한복의 전형적인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는 A라인 실루엣을 기본으로 턱(tuck), 플리츠(pleats), 드레이핑(draping)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변화를 추구하면서 선의 특성으로 연속성을 부가하고자 하였다. 색상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선택된 소재가 제공하는 색상의 범위에서 작품의 성격에 따라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부피감과 드레이퍼리 실루엣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서 폴리세틴을 선택하였는데 모란, 구름, 십장생, 격자문 등의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작품에 상징적 의미를 부가하고 있다.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기로 하고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서 전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제작기법의 구체화를 위한 방법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8행의 자유시를 창작하고 작품의 제목으로 삼았다.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된 8행의 자유시는 작품 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고자

<표 3> 디자인 기획

구분	조형적 특징				미적 특성	
	실루엣	색상	재질 및 문양	기법		
디자인(1)	Mermaid	Ivory	Poly Satin	모란	플리츠	연속성 · 상징성
디자인(2)	Balloon	Emerald	Poly Satin	십장생	겹치기	상징성 · 유동성 · 연속성
디자인(3)	A Line	Navy, Green, Orange	Poly Satin	십장생	패치워크플리트	상징성 · 연속성
디자인(4)	Fit & Flare	Yellow, Purple	P. Organza	모란 격자문	패치워크터	연속성 · 상징성
디자인(5)	Tapered	Jade Green	P. Organza	모란	드레이핑	유동성 · 연속성
디자인(6)	Mermaid	Gold	Poly Satin	십장생	엮기 플리츠	연속성 · 상징성
디자인(7)	Empire	Light Blue	P. Organza	모란	드레이핑	유동성 · 연속성
디자인(8)	A Line	Black	Poly Satin	모란	파이핑 흑백대비	연속성

융합성

하였으며 덕혜옹주의 삶에 대한 믿음과 현실적 생애에 대한 비통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개별 디자인에 적용된 조형적 요소와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작품 해설

디자인 1) “생각으로 형을 빚고”이다. 아이보리 색상의 새틴으로 제작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열대어 모양의 우아함 강조하고 있다. 바다라인을 그대로 따르는 몸통부분과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은 둥근 모양의 심플한 형태를 조합하였고 스커트의 아랫부분은 플레이진 테일의 형태로 마무리 지었다. 원단에 새겨진 모란 문양은 부귀(富貴)를 상징하며 우아함과 권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디자인 2) “마음으로 색을 물들이니”이다. 디자인(1)의 스커트 상단부위를 확대하여 둥근모양의 형태감을 강조하고 두 가지 톤의 녹색을 물결치듯 조합하였다. 목선의 어두운 청색은 안정감을 더하여 분산될 수 있는 시선을 착용자의 얼굴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뜻하는 십장생 문양은 열린 형의 실루엣으로 유동성과 연속성을 함께 표현한다.

디자인 3) “겹겹이 쌓은 믿음으로”이다. 전통적인 한복의 실루엣을 더욱 간결한 A라인의 실루엣으로 스커트 부분에는 주름 디테일을 첨가하였다. 또한,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단청의 색과 문양을 재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천상계와 인간계의 합일(合一)을 표현하며 시공간적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디자인 4) “염원을 이루리라”이며, 디자인(3)을 발전시켜 바디부분에서 단청의 기하학적 문양을 비대칭적으로 재구성하여 가슴에 완전히 밀착시켜 융합성을 표현하며, 스커트부분에서는 원단의 일부에 반복적으로 주름을 잡아서 선과 면의 연속성 속에서 실루엣의 변화를 구현하고 있다.

디자인 5) “하늘 향한 마음으로”는 옥색의 새틴으로 주름을 잡아 비정형적인 형태감으로 구름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드레스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가슴(상동)부위에서는 끝처리 없이 풀어지는 원단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표면 재질감을 더하였다. 실루엣의 유동성과 유기적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6) “나눔을 엮어가니”에서는 십장생 문양이 새겨진 황금빛 새틴으로 풍요로운 대지(大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몸통부분에서는 전통 대나무 공예 등에서 나타나는 엮기 기법을 활용하였고, 엉덩이 선에서 시작된 주름이 헴라인(hem line)에서는 사라지게 구성함으로써 선의 반복과 중첩, 사라짐을 통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7) “흐르는 강물처럼”이며 디자인(6)이 구름의 흐름을 표현한다면 디자인(7)은 물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깨에서부터 치마 단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흐르는 유기적인 사선의 부드러움과 힙 부위로부터 굽이치듯 흐르는 주름은 고요함과 역동적인 국민적 정서를 나타내며 유동성, 연속성, 융합성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8) “바람은 야화(夜話)를 속삭인다.”이다. 모란 문양이 새겨진 블랙 새틴으로 심플한 라인의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내부 구조로써 몸에 밀착된 다른 레이어(layer)를 제작하여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슴부위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이는 효과를 구현하였다. 또한 바디부분에서 옆선을 제거하고 앞판과 뒤판을 하나의 조각으로 재구성하였다. 검정색의 드레스와 대조를 이루는 흰색의 바이어스 테이프는 드레스의 구조적 특징을 부각시킨다. 360도를 감싸는 헴 라인의 주름은 드레스에 안정감을 더하며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1)에서 8)에 대한 도식화, 작품의 이미지 및 작품에 반영된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디자인 1) - 8)에 대한 도식화, 작품 이미지 및 미적 특성

디자인 1) “생각으로 형을 빚고”				디자인 2) “마음으로 색을 물들이니”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연속성 · 상징성 · 융합성				상징성 · 유동성 · 연속성 · 융합성
디자인 3) “겹겹이 쌓은 믿음으로”				디자인 4) “엄원을 이루어라.”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상징성 · 연속성 · 융합성				연속성 · 상징성 · 융합성
디자인 5) “하늘 향한 마음으로”				디자인 6) “나눔을 위하여”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유동성 · 연속성 · 융합성				연속성 · 상징성 · 융합성
디자인 7) “흐르는 강물처럼”				디자인 8) “바람은 야화를 속삭인다.”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도식화		작품 이미지	미적 특성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유동성 · 연속성 · 융합성				연속성 · 융합성

4. 작품 전시

디자인 기획에 따라 제작된 8점의 드레스 작품은 미술관 전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전시장은 대구에 있는 등록된 미술관 중에 하나인 계명대학교 극재미술관 제 2 전시실이며, 전시일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그림 17>과 <그림 18>의 전시장 디스플레이 사진을 통해 덕혜옹주를 뮤즈로 선택한 배경과 작품의 제작의도, 덕혜옹주의 이미지와 유품사진을 전시장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했던 디자인 콘셉트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5일의 전시기간동안 200여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다녀갔는데 패션디자인 전문가와 전공학생, 일반인의 반응에서 한국의 미를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었다. 일반 관람객은 한복의 형태감과 문양을 중심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보였다. 패션디자인 전공학생들의 경우도 형태나 문양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인식하기도 했지만 선과 색의 반복이나 조화방법 등 부분과 전체를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문양의 경우 직접적으로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액세서리 등 소품으로 활용되기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교육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전문가의 경우에는 작품제작의 배경이나 의도 등에 중점을 두고 개별 작품의 표현방식을 비교하며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실무전문가도 교육전문가와 같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유사하였지만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패턴의 구성방식이나 기법의 활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작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관람자들의 미적 특성 인식에서 유행성은 부피감과 실루엣을 중심으로, 상징성은 색상과 문양을 중심으로, 연속성은 실루엣과 디자인 라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융합성은 서양복식의 구조와 한국적 색채와 문양의 조화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레드카펫 드레스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한국 패션디자인의 글로벌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고 1990년대 이후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패션쇼를 진행했던 진태욱, 이영희, 설윤희과



<그림 17> 전시
『덕혜옹주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다.』, 2013
(출처: 직접촬영)



<그림 18> 전시
『덕혜옹주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다.』, 2013
(출처: 직접촬영)

이상봉의 작품사례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복식의 미적 특성을 표현하는 조형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한국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으로는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 융합성이 도출되었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성은 평면적 구성이나 풍성한 볼륨감에 의한 실루엣이 변화, 불규칙한 곡선의 흐름이나 경계의 해체와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징성은 모란, 격자문 등의 전통문양과 천연염색이나 자수 등의 기법, 오방색의 활용을 통해 나타났다. 셋째, 연속성은 주름이나 드레이프를 통한 선의 흐름과 실루엣의 관계, 비치는 소재를 통해 표현되는 선과 색의 중첩, 컷 아웃을 통해 나타나는 몸과 복식 간의 공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융합성은 옷의 구성방식과 소재나 문양의 활용에서 동서양의 요소가 조화롭게 표현된 것과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의 다른 미적 특성들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활용한 레드 카펫 드레스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의 단절과 상실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덕혜옹주”를 뮤즈로 선택하였고 “덕혜옹주,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다.”를 콘셉트로 정하고 8점의 드레스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에서는 도출된 미적 특성을 개별 작품에 대응하는 대신 전체작품이 개별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의도하였지만 도출된 미적 특성의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동성은 풍성한 부피감으로, 연속성은 플리츠, 턱, 드레이프 등의 기법이 전체 실루엣과 디테일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었다. 상징성은 선택된 소재의 문양과 색상의 조합, 유기적인 흐름의 형태감을 통해 표현하였고, 융합성은 동양적 색채와 문양을 서양복식의 구성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으로 도출한 유동성, 상징성, 연속성, 융합성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선별된 자료에서만 타당성이 있다

는 것과 선별된 자료들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 관람자들이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을 조형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족한 결과이지만 본 연구가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와 디자인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3-4.
- 2) 금기숙 (1999).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pp.69-82.
- 3) 최세완, 김민자 (199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미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17(1), pp.103-117.
- 4) 김인경 (2005). 현대의상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논문집, 13(-), pp.23-36.
- 5) 김현숙 (2003). 여성복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조형성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3(1), pp.87-103.
- 6) 김유경 (2007). 패션트렌드로서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13(3), pp.232-244.
- 7) 김인경 (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pp.536-547.
- 8) 양리나, 최나영 (1997).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표현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배재논총, 2(-), pp.413-425.
- 9) 최인려, 이선희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과 일본 전통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5), pp.749-759.
- 10) 김세봄, 제기연, 박인조, 예지영, 이경희(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1), pp.24-32.
- 11) 권순교, 박선경 (2006).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화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2), pp.55-75.
- 12) 파리 패션제도 깎짝 놀랄 한국 디자인 (1995. 3. 9). 한겨레신문, p.11.
- 13) 두산동아 편 (2003). 동아 새국어사전 (제 5판), 서울: 두산동아. p.2540.
- 14) 위의 책, p.880.

- 15) 김민자. 앞의 책, pp.23-24.
- 16) 미학사전 (1988). 서울: 논장, pp.300-301.
- 17) 손경자 (1969). 李朝服飾小考, 首都女子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 18) 금기숙 (1990).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복식, 15(-), pp.121-130.
- 19) 최세완, 김민자. 앞의 책. p.116.
- 20) 권영숙, 도주연 (2000). 조선복식에 표현된 선(善)의 미(美)에 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8(2), pp.217-236.
- 21) 이진민, 김민자 (2006). 동양 미학적 관점에 의한 한, 일 여성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고찰, 복식, 56(5), pp.132-149.
- 22) 심수현, 나유신, 채금석 (2007).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5(1), pp.14-23.
- 23) 이예영 (2011). 이영희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pp.473-482.

A Study on Development of Red Carpet Dress Design Us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Jeong, Ki S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 red carpet dress design which expresses Korean aesthetics.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aesthetics were reviewed based on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were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ers' artworks. Through the case analysis, flexibility, symbolism, continuity and compatibility were drawn a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Flexibility was expressed mainly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a change of silhouette along with the movement of wearer or human body through plane composition or full volume, beauty of space through the arrange of patterns, flow of irregular line and boundary deactivation. Symbolism was shown mainly through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patterns including peony and lattice patterns, techniques such as natural dyeing and embroidery, materials such as five cardinal colors and the combination of colors. Continuity was express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ow of line and silhouette through the repetition of wrinkle or drape, the systematic nature of line and the overlapping of color, and the expression of spatiality shown through the cut-out technique. Compatibility was expressed with the harmonious expression of characteristics of eastern and western clothes in the configuration method of cloth or the utilization of material and the combination of other aesthetic characteristics. Before developing the design, Princess Deokhye who was a person symbolizing the loss and distor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as selected as muse, and in order to apply the drawn aesthetic characteristics, the design plan was prepared and a total of 8 dresses were produced.

Key word: Korean style red carpet dress design, flexibility, symbolism, continuity, compatibility